

제2회 한국여성대회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힘내라 여성!

- 문의 : (02)313-1632

희망을 나누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2003년 태풍 수해복구 지원
국내 자연재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했던 삼성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
에서도 복구활동에 앞장서는 등 해외에서도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

희망을 더 크게 카우는 일, 삼성이 세계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지난 해, 쓰나미는 많은 것을 잊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의 희망마저 쓸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전세계인이 하나 되어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구촌 식구들 모두가 형제이며 우리 혼자만으로는 존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때 도움을 받았던 우리도 이제는 주요 무역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국력을 키워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자원 봉사 및 이웃돕기를 통해 희망의 나눔을 실천해 온 삼성은 서로 잘사는 상생(相生)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와 나누는 이 모든 희망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싹틔우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돌아오기에 삼성은 지구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기쁘려고 합니다.

함께 가요 희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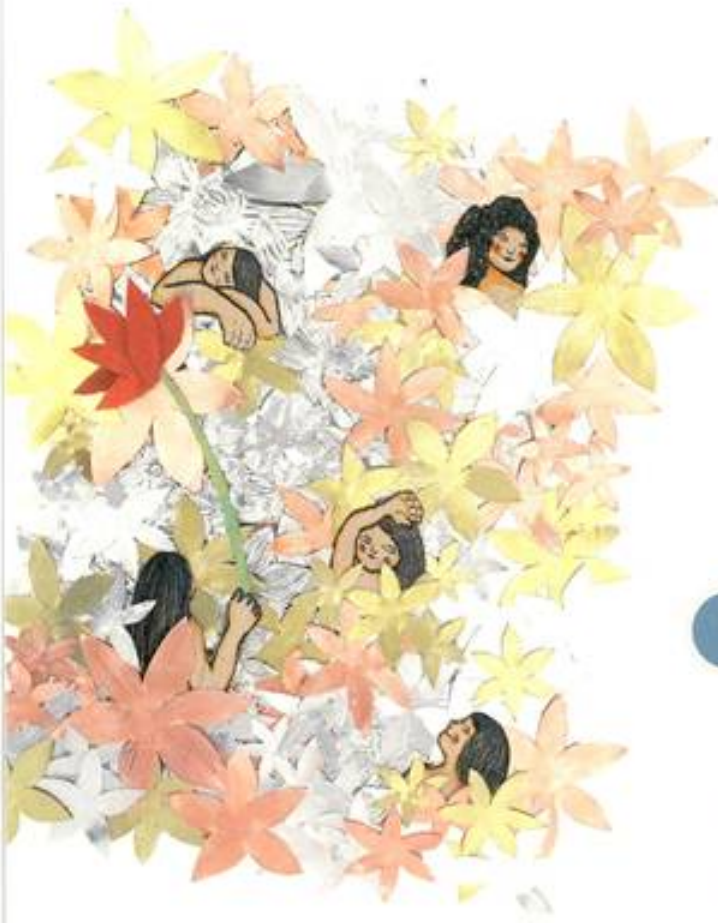
쇼핑에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CJ홈쇼핑 프로그램 예고제

이제 원하시는 제품, 꼭 필요한 정보를
당신이 편리한 시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CJmall.com을 클릭하셔서 웹매거진 ON-air를
신청하시거나 방송편성표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제품정보를 최대 2주일 전에 확인하실 수 있고
방송 알리미를 이용하시면 해당 상품 방송 시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며
방송 전에 미리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획 있는 쇼핑, 실속 있는 쇼핑
CJ홈쇼핑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증



행복한 나눔! 평등한 가족! 힘내라 여성!

행·복·한·나·눔



최근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비정규직화와 진전과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은 특히 여성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의 실업 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는 동시에 여성가구주 중 빈곤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 높은 빈곤도를 보이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보장과 차별철폐,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정책과 부, 일자리를 여성과 함께 나누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복한 나눔' 운동이 요구된다.

평·등·한·가·족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성차별과 반인권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도가 반세기만에 폐지되었다. 이제 호주제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평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문화운동이 요구된다. 평등가족 운동은 미혼, 사별, 비혼,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고, 가족의 다양성에 기반한 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을 요구하는 운동이자 일상생활의 타점인 가족에서부터 평등문화를 일궈 평등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운동으로, 2005년 여성연합이 중점적으로 진행할 운동과제이다.

힘·내·라·여·성



그동안 여성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일터와 가족,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 여성들은 남에 의해서 요구되는 역할을 뛰어넘어 가족과 지역공동체, 사회에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요구를 알리고, '공과 사의 분리'라는 허위의식 속에서 가족과 지역공동체, 일터를 분리시키는 모든 의식과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힘내라 여성'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하고 자매애로서 함께 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국여성대회 Program

참여마당 (1:00~1:30) / 먼저 도착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참여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여성희망경기!
희망가면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에드블록 희망작기

• 전시 프로그램

가상과 딸 사진전시 (2004년 미술친화회 전시작품) 및 "엄마와 딸" 특별사진 찍기
한여노협: 2005. 여성노동자 사진전
여성민우회: 호주제, 성매매 관련 내용의 전시
여성연합: 안아주세요 캠페인 전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가단체 선전을 대강당 주변에 전시

식전축하행사 (1:30~2:00) / 사회: 김금옥 여성연합 사무처장

- '새팔기' (목포여성의전화 노래모임) / 살림, 지금처럼 담담하게(노래)
- '돼지꿈' (대전여민회 연극모임) / 평등제상? 당연히하지!(공트)
- '마중물' (부산여성회 문예위원회) / 울릉(우리는 하나)
- 뮤지컬 '러브콜트' / 38세여성들의날 축하해요

기념식 프로그램 (2:00~3:00) / 사회: 진양혜 & 손범수

- 개막영상
- 참가단체 소개
- 대회사
- 내빈소개
- 축하영상
- 2005년 여성희망
- 시상식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대담돌 & 결원돌 시상
- 호주제폐지 축하해요!!
- 축하공연 / 안혜경, 노래모임 아름마
- 폐회사



여성희망 경기 Program

이동경로

- 이대정문 — 선촌로타리 — 동교동삼거리 — 흥대공원내 흥대 야외무대

복색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경기대회 /

풍물패 (단비) | 행진방송차량 | 행진대표단 | 복색한 참가자

- 자현 / 1908년 루트거스의 여성이 되어보자 (서울YMCA 여성회원들)
- 박스몹! 여성이 바라는 세상 / 박스에 여성희망작기
- 가면 / 가면을 쓰고 행진 진행



대중여성캠페인

“What Women Want?”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97주기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지하철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이 좀 더 웃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바뀌었으면 하는 여성들의 희망적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3월 8일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

● 지하철 예술무대에서 진행하는 서울지역 기념주간 캠페인

3월 2일(수)부터 8일(화)까지 동대문운동장, 을지로입구등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전철역에서 진행되는 여성캠페인, 여성평화, 여성의 몸, 지하철 성추행추방, 평등가족 등 다양한 여성이슈와 만나는 지하철 캠페인!

3/2(수)	3/3(목)	3/4(금)	3/5(토)	3/6(일)	3/7(월)	3/8(화)
여성연합 - What Women Want? 캠페인	평화여성회 - 3/20 국제반전행동 캠페인	서울여성의전화 - 여성, 경제와 만나다	한국여성민우회 -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캠페인	제21회 한국여성대회 - 이대 대강당	여성노동연대회의 - 여성노동 요구 기자회견 천여궁 - 호주제 캠페인	38기념 남북공동성명발표 한국성폭력상담소 - 공공의적, 지하철 성추행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

- What Women Want? (부제: 웃어라~ 세상! 웃어라~ 여성!)
: 동대문운동장 전철역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여성노동자 사진전(3/1-3/5)
: 을지로 입구 전철역

● CJmall 공동캠페인(<http://www.cjmall.com> → 이벤트페이지 클릭)

※ 2월 22일 ~ 3월 8일까지 캠페인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화장품, 쿠션, 상품권 등) 제공

3월 8일은 세계○○의날 일까요? 퀴즈이벤트

What Women Want? 여성희망 100자 쓰기 이벤트 진행

여성용품 가격인하

● 아름다운 재단 “여성의 날 특집, 여성연합과 함께 하는 문화나눔”

※ 3월 2일 ~ 3월 10일까지 문화나눔 티켓 50%를 여성단체에 우선지급. 신청란에 “여성연합”의 이름을 명기하면 우선적으로 문화나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름다운 재단 <http://www.beautifulfund.org>에서 문화나눔 배너를 클릭.

[문화나눔 작품]

연극 '다녀왔습니다' (100명) / 연극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회당 50명) / 뮤지컬 '더플레이 엑스' (회당 5명) / 뮤지컬 '사랑은비밀타고' (40명) / 뮤지컬 'JUMP' (100명) / 뮤지컬 '도깨비스톱' (100명) /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 (20명) / 어린이뮤지컬 '우리는 친구다' / 국립국악관현악단 '2005 겨울의 노래' (회당 80명) / 국립무용단(회당 80명) / 주목-흐름을 눈여겨보다 / 디아더 사이드 (회당 30명) / CCM 음반 미라클 2집 싸인 음반

“What Women Want?”

- 뮤지컬 ‘러브컬트’ 여성관객 15% 할인 이벤트 진행 <http://www.musical21.com/>

※ 여성관객에게 여성용품 지급

- Daum 미즈넷 온라인 캠페인

- 3·8 세계여성의날과 함께하는 시민운동가 젠더감수성훈련

- 일시: 3월 9일(수) ~ 3월 23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1회 4시간(오후 2시~6시), 총 3주 12시간
- 대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8개), 제21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67개)
- 후원: 한국여성재단
- 장소: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 교육 프로그램

일정	주제	내용	강사
3/9(수)	놀자! -애니마 애니무스를 만나다.	- 서로 소개하기(정보를 파는 거래) - 나의 성평등 지수는? - 성평등 상은 누구에게?(가치제임)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부원장)
3/16(수)	알자! -성평등이 뭘까?	- 성평등 알고 이해하기(강의) - 어떻게 할까?(두마음 토론) - 우리들의 생각은? (토론 결과 정리 - 마인드맵)	이상화 (양성평등진흥원 교수)
3/23(수)	함께하자! -차이에 대한 존중, 통합을 위한 노력!	- 나의 갈등유형은? -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원칙이 있나? -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기? - 평화적 갈등해결로 가는 길은? - 수료식	장윤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제21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 2005년 3월 6일(일) 낮 1시~4시 까지
-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주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1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지역여성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연합 회원단체

경남여성회, 가톨릭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올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미주여성인권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서울, 인천, 광주, 마산창원, 부산, 전북, 무전, 인천), 한국여성민우회(고양, 광주, 군포, 김포, 서울남부, 서울남서,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전화연합(서울(강서양천),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강화, 강릉, 광명, 성남, 수원, 시흥, 안양, 김해, 창원, 군산, 영광, 익산, 전주, 천안, 청주, 부천, 진해, 김포, 목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시민·사회·문화·인권단체

경실련, 국제영네스티, 공공문화개발센터 urart, 가톨릭윤리실천운동본부, 녹색연합,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문화연대, 민변여성복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연륜운동시민연합,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플랜티어21,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 모임,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정치세력화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초록정치연대, 평화의친구들, 평화인권연대, 한국인종예술인총연합, 한국청신대문재대책협의회, 한국YMCA연맹, 한국청년연합회(KYC),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KNCC

since 1908.3.8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유래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해야 했고, 귀부인들의 화려한 외출복에 은색, 금색의 번쩍이는 장식을 박느라 눈이 머는 여성이 생기기도 하였다. 굶지 않기 위해 일하면서도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미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 날을 기념해서 1910년, 각국의 여성지도자들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엔은 1975년 이 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부는 국가의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또한 일부는 여성들의 자축행사로 여성의 날 행사가 이어져왔다. 여성의 날을 태동시킨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3월 한달 간 다양한 행사가 여성단체들에 의해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3월 8일을 공식휴일로 지정해 여성들을 위한 갖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이 국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구 소련에서는 매년 3월 8일을 여성에게 꽃을 주는 날로 정하는 등 다양한 축제와 기념행사가 팍을 이어 왔다. 특히 유엔에서는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의 기념축사가 발표되어 여성인권에 관한 유엔 차원의 결의가 세계에 선포되는 날이기도 하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 '한국여성대회'의 역사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3·8기념행사가 일제하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맥이 끊어지다가 해방 후 부활하였지만, 이 역시도 1948년 이후에 사회적 격변과정에 맥이 끊겼다가 1985년에 와서 다시 계승되었다. 독재에 대한 항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져가던 1985년, 제 1회 한국여성대회가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에 의해 개최되었다. 이후 1986년에는 '민주화와 여성생존권'이라는 주제로 2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1987년부터는 지난 2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여성대회를 치러온 여성단체들이 연합해서 2월에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대회가 주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현재까지 20회째 한국여성대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매년 3월 8일을 전후해서 개최되고 있다.

한국여성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연인원 1500~2000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대표적인 여성문화행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이제 3·8여성의 날 행사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함께 모여 여성단체 회원 및 가족, 그리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모여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전 국민의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매년 3월 8일을 기념하면서, 이날의 의미를 되살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그 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사회적으로 천명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목표로 하는 민주, 평등,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결과 연대의 자리라는 의의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러분! 뜨거운 자매애로 사랑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3월 2일 반세기만에 성차별과 반인권의 상징인 호주제도가 마침내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997년 제 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함깨쓰기 선언'을 채택하여 호주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지 꼭 8년이 되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폐지되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폐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투쟁해 왔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외치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와 해방 후에 잠시 '여성의 날' 기념대회가 열렸고, 본격적으로는 1985년부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제 1회 한국여성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1회 한국여성대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성들은 민주·평등·평화·상생의 봄을 열기 위해 독재와 폭력, 차별과 가부장제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이제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여성운동의 한 장을 넘기면서, 21회 한국여성대회에서는 대안사회를 향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배

‘평등가족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자호주로 가족의 계통을 이어가는 가족문화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남녀와 세대 구분을 넘어서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성과 평등성, 존엄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켜 남성은 부양책임자, 여성은 돌봄의 책임자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이 사라지고, 부부 공동부양, 돌봄의 가족연대가 새로운 가족문화와 관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단독가구,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외국인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차별받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식 개선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나눔운동’을 제안합니다.

일하는 여성의 70% 이상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회,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신종계급사회로 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는 불평등의 극대화, 소수를 위한 다수의 불행,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소비 구매력이 저하되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를 향해 치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구조화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자리 나눔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익보호를 위해 나설 것입니다. 또한 나눔운동을 통해 우리는 노동시장의 정상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그리고 민주와 평등의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직장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키며 책임져온 주체이자, 갈등의 중재자였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성들은 더이상 누구의 아내, 누나, 어머니, 할머니의 역할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영자, 일터의 책임자, 지역사회의 지도자, 환경의 지킴이, 평화의 중재자, 평등의 전파자로서 우리 여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이름값을 해낼 자랑스러운 평등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3월의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여성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와 주신 남성 여러분, 당신들이 희망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힘,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평등한 가족, 행복한 나눔, 성평등사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2005년 3월 6일
제 97회 세계여성의 날 기념 2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남윤인순, 박영미, 정현배



제17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전국여성노동조합

남성중심의 주류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이해에 기초한 독자적 여성노동조합운동의 시도와 성공!

여성노동자는 IMF 경제위기상황에서 우선해고의 대상이 되고, 영세사업장에서 해고되는 여성들은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일터를 떠나야 했으며, 한 번 일터를 떠난 이후에는 더욱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외에는 달리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여성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속에서, 실업과 반실업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절망은 희망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대공장·남성·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에서 여성의 이해에 기초한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과감한 시도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성 대중조직화의 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600만 여성노동자 중에 70%(420만)나 되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이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성운동의 중요한 축인 여성노동자의 조직적 토대를 형성한 것이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 이상이 비정규직종에서 일하고, 그 중 5%정도 조직되어 있는 현실은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전국단일노조 결성을 희망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8월 29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400여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희망의 뜻을 올린 이후 전국 10개 지역지부, 6개 업종회의, 70여개 분회 및 지회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드러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발굴하고 권익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0년 3월 출범한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를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 홍보와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 골프장 경비보조원과 방송사 구성작가들을 조직하면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켰

으며, 특수고용노동자관련 법제정의 필요성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중장년 청소년여성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및 조직화를 통해 노동계 최초로 최저임금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였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이들의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확산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경험을 근거로 하여, 법적인 권리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활동방식은 비정규직 사안의 특성과 전국단일조직의 특성,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우리사회 조건에서 법과 제도를 통한 보호없이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과 그에 따른 노력의 결과이다.

언니 리더십에 기초한 여성주의적 조직화의 모델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조직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특성 - 관계중심나 갈등 해결방식, 다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공사업역의 통합 - 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갖는 관심과 어려움, 결혼, 출산과 육아, 직장과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지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하여, 여성친화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계적 지휘체계의 위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중심에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언니 리더십에 기초하여, 영세사업체, 파출, 가내노동자 등 제도적인 틀 밖에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여성주의적 조직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단체 연혁 History

- 단 체 명 : 전국여성노동조합
- 대 표 자 : 나지현
- 성 립 일 : 1999년 8월 29일
- 조합원수 : 5,000명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8-21 2층 (우 121-886)
- 주요 단체연혁

1999. 8. 29	전국여성노동조합 설립
2000. 3. 3.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 결성
2000. 8. 28~9. 1	여성노동조합운동의 전망과 연대 - 세계의 여성노조를 초청하여 1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개최
2000~2002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 등 대응
2001~2002. 6~7월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토론회 및 대응활동 전개
2001. 8. 26	전국여성노동조합 방송사지부 결성(구성작가 등)
2001. 10	방송사 구성작가 노동3권 토론회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실태 및 선재보험적용을 위한 토론회
2002. 4~5	학교급식 조리원 및 보조조리원 실태조사 실시
2002. 6. 21	전국여성노동조합 일용영양사지부 결성
2002. 9. 14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도서관사서지부 결성
2003. 3. 17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과학실험보조원지부 결성
2003. 5.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2004. 2. 21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결성(안산사흥지부와 부천지부 통합)
2004. 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2004. 8. 38	전국여성노동조합 5주년 기념 워크숍
2004. 11.	비정규직 여성 근로실태와 법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발행
2005. 2. 22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창립
2005. 현재.	10개 지역지부(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 부산, 경남, 전북, 대구, 울산, 대전충청(추)) 6개 업종회의(공공부문 미화원분회, 방송사, 학교영양사, 학교도서관사서, 학교과학실험보조원, 학교급식), 지부 산하 텔레마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교용어미화원, 호텔홈메이드, 학교급식조리사, 파견 사무직, 제조업 하청업체, 학교 비정규직 등 70여개 분회 및 지회 활동 중



디딤돌

올해의 성평등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참여자 24명'

한국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해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범죄로 어렵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생존자의 말은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적인 가치와 인식 속에서 의심받고, 왜곡되어 진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총 2회에 걸쳐 열린 '성폭력생존자 말하기 대회'에 참여한 성폭력 생존자 24명은 자신의 생존이야기를 행사 참여자에게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다른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지하고, 성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생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현실 속에서, 이들의 말하기는 우리사회의 부당함을 감내하며 싸워가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살아있는 힘찬 울림이 되었다.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낸 '민변 호주제 위헌소송변호인단' - 이석태, 강금실, 진선미, 이정희, 조숙현, 김수정, 이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의 호주제 위헌소송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2005년 2월 3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전통은 용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변호인단은 지난 2000년,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에게 민법개정을 밀기가 보다는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호주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호주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5년간 5차례에 걸친 뜨거운 공방을 거쳐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 년에 걸친 호주제 폐지운동사에서 법적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2004년 3월 2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선등행위와처벌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이금형 총경은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지침 등의 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의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 산하 '긴급지원센터' 설치하여 상담 및 지원활동을 의욕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일인 2004년 9월 23일 이후에는 성매매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117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변화와 성매매 여성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 총경의 열정적인 활동은 다른 경찰의 모범이 되었다.



KBS '주부, 세상을 말하자' 제작팀

(최명찬 부장, 양희섭PD → 최명찬 부장, 김학순PD → 양희섭 부장 → 주연자PD)

2003년 11월 3일 첫방송을 시작한 '주부, 세상을 말하자'는 전통적인 주부 역할만을 강조하는 토크쇼·정보프로그램과 아침드라마의 틈새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부대상 프로그램 유형을 보여주었다. '주부, 세상을 말하자'는 주부의 눈높이로 주부의 관심사와 해결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로 사회전반의 핫 이슈를 진단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며, 그동안 '호주제 폐지, 소외여성에게 희망을, 일하는 여성이 70%가 비정규직'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주부의 시선'이나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접근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거리도

올해의 성평등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의 성차별성을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유남석 판사'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은 채용, 배치, 승진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함으로써 조기 정년퇴직에 이르게 된 매우 명확한 성차별 사건이지만, 행정기관과 법원은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사자 정영임은 1985년 입사 당시 동일한 자격의 남성은 5급, 여성은 6급으로 분리하여 채용하는 모집 채용상의 성차별을 시작으로, 남성노동자들은 3~4년만에 승진하지만 정영임 당사자는 15년 1개월만에 승진하는 승진차별을 당했다. 회사는 단 한번도 여성노동자의 채용, 배치, 승진, 정년 등의 인사정책을 통해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한 적이 없는 성차별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은 사용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편견과 성차별적인 통념을 사용하고 있다.



정신지체 1급 장애청소년에게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언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윤재운 판사'

2004년 9월 15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정신지체 1급 장애청소년 이모씨(여, 17세)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씨(남, 69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 이모씨가 저능아이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마을 어귀에 있는 요트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등, 정신지체 1급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해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장애청소년의 저항책임만을 묻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적용함으로써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함의 소치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에 대한 불성실한 수사·비전문적인 판단으로 가해자를 불기소한 검찰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은 종교기관 부산 유치원 원아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들이 피해 정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이유없다고 세 번에 걸쳐 기각하였다. 또한 유아성폭력 피해수사에 있어 상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편향적인 증거채택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증거불인 비디오 녹화본을 분실하기도 했다. 해당 검찰과 대검의 비전문적이고 불성실한 수사태도는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한 채, 아동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합의되고 있는 근래의 동향들을 후회시키는 결정이었다.



여성회원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는 '서울YMCA 박우승 이사장 외 이사 총 24명'

서울YMCA는 헌장 상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회는 '남성'이라고 간주하면서 그동안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회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지난 2003년 100차 총회에서 '여성회원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를 집행해야 하는 이사회는 관행과 절차를 운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4년 총회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서울YMCA에 대해 '성차별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이를 외면한 채 2006년 2월26일 열린 총회에서 남성만이 참여한 채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통해 부결처리 하였다. 또한,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회원들을 '난동꾼', '경변' 등의 폭력무리배로 치부하는 발언 등을 일삼으면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함·께·하·는·사·람·들



진행 Staff



진양혜 |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손범수 | 아나운서

축하공연 Staff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



노래모임 '아줌마'

축하공연 | Still



목포여성회전화 '새마을'



대전여민회 '돼지꿈'



부산여성회 '마중물'



뮤지컬 '러브렐트'



한국여성인우회 풍물패 '단비'

기획팀 | Still



연출 | 이해란



미술감독 | 홍현숙



무대미술 | 안한숙



기획 | 채리미영

제작지원 | Still



문화재단지원 Tel : 02-756-9430

비즈프로덕션

비즈프로덕션 Tel : 02-2266-0866

은백음향

은백음향 Tel : 02-742-6532



여성연합 지부

-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63
- 경남여성단체연합 055-282-0365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361-6078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471-6484
- 부산여성단체연합 051-852-6648
-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여성연합 회원단체

- 경남여성회 055-282-9603
- 기독교민회 02-2265-7957
- 대구여성회 053-421-6758
- 대전여민회 042-252-3534
-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3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802-6083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 새움터 031-867-4655
- 수원여성회 031-241-7530
- 안양여성회 031-458-3050
- 여성사회교육원 02-2278-7705
- 울산여성회 052-266-7159
- 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2069-0521
- 제주여민회 064-756-7261
-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7
- 포항여성회 054-284-0404
- 한국보육교사회 02-362-8568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0505-533-3838
-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3011
-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0
-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 대구여성노동자회 063-428-6338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1-5362
-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 부천여성노동자회 032-668-1011
-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5-6844
- 부산여성회 051-506-2590
-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 고양여성민우회 031-919-1195
-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 김포여성민우회 031-986-6007
-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0
-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 한국여성연구소 02-723-6206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 서울여성의전화 02-2272-2161
- 서울강서양천지회 02-2605-8455
- 광주여성의전화 062-363-7739
- 대구여성의전화 053-471-6484
- 부산여성의전화 051-817-4321
- 울산여성의전화 052-244-6712
- 인천여성의전화 032-527-0090
- 강화여성의전화 032-934-1903

강릉여성의전화 033-645-1002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80

시흥여성의전화 031-496-9390

안양여성의전화 031-442-5385

김해여성의전화 055-329-6450

창원여성의전화 055-266-3722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6

영광여성의전화 061-353-4994

익산여성의전화 063-857-8163

전주여성의전화 063-287-7324

천안여성의전화 041-561-0306

청주여성의전화 043-252-0966

부천여성의전화 032-328-9713

진해여성의전화 055-546-1400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목포여성의전화 061-283-4551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부산여성장애인연대 051-517-9669

대구여성장애인연대 053-637-6058

광주여성장애인연대 062-676-2305

경남여성장애인연대 055-242-5043

충남여성장애인연대 041-577-7060

충북여성장애인연대 043-262-3805

목포여성장애인연대 061-283-3767

양천구여성장애인회 02-2605-8728

시각장애인여성회 02-916-1944

농아인여성회 02-865-4466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02-365-4275

·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393-8900

여성·시민·사회·문화·인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2-747-8566

· 국제엠네스티 02-730-4755

· 공공문화개발센터 UR-ART 02-745-1447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02-871-7487

· 녹색연합 02-747-8500

· 사단법인 또하나의문화 02-322-7946

· 민변 여성복지위원회 02-522-7284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02-392-0181

·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02-717-9201

· 볼런티어21 02-415-6575

· 성매매근절위한 한소리회 02-843-3872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 여성문화예술기획 02-587-0590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02-337-7810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 참여불교재가연대 02-745-7799

· 참여연대 02-723-4250

·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02-338-7480

· 초록정치연대 02-725-5305

· 평화의친구들 02-813-3316

· 평화인권연대 02-393-9085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02-365-4016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02-739-6851

· 한국YMCA연맹 02-754-7891

· KYC(한국청년연합) 02-393-1355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02-577-0601

· 환경정의시민연대 02-743-4747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흥사단 02-743-2511

나눔과 섬김, 정직과 사랑!

우림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화두입니다



BEST VALUE DEVELOPER - 우림건설

나눔 만큼 아름다운 건설은 없습니다.

섬김 만큼 아름다운 건설은 없습니다.

정직 만큼 아름다운 건설은 없습니다.

사랑 만큼 아름다운 건설은 없습니다.

나눔과 섬김, 정직과 사랑!
우림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화두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

우림건설

자원순환 사회 구축!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온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국민의 신뢰 속에 20여년간 쌓아온 재활용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창조적 정신으로
21세기 환경선진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자원화
시설운영



재활용산업
자금융자



창업/기술
지도



재활용
사이버마켓



한국환경자원공사

Korea Environment & Resources Corporation



www.envico.or.kr



네트워크로 하나되는 아시아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KT의 첨단 네트워크로 아시아가 하나됩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이란에 이어 방글라데시까지 첨단 네트워크를 수출하는 KT!

KT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드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하나되는 나라
Let's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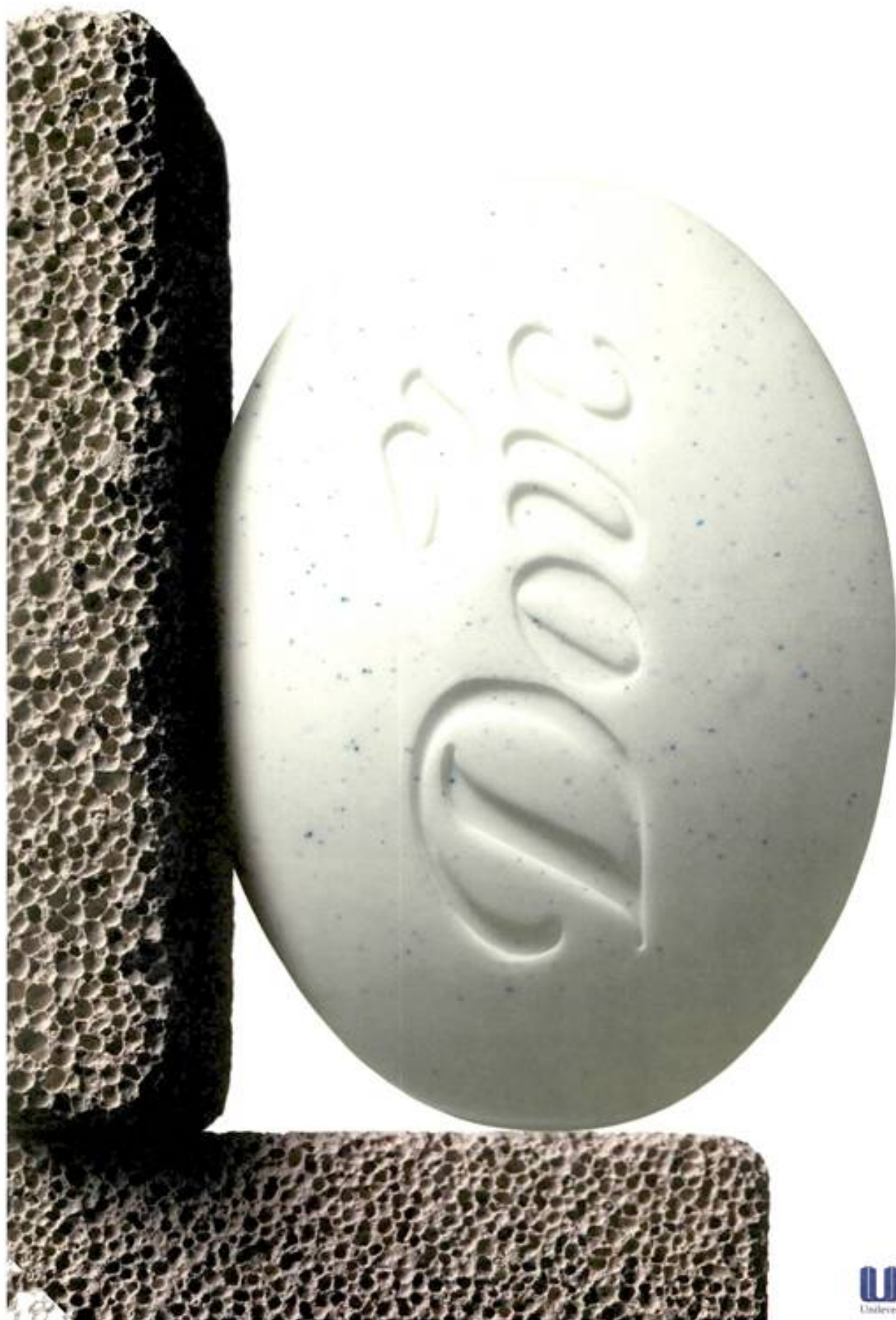
KT의 세계 진출 현황

- ▶ 방글라데시 : 12만5천회선 규모 통신망 구축 계약 체결 (2004.10)
- ▶ 이란 : 테헤란 등 20개 도시에 초고속인터넷 10만회선 구축 계약 체결 (2004.9)
- ▶ 태국 : 방콕, 푸켓 지역에 ADSL 5,500회선 개통 (2004. 7)
- ▶ 사우디아라비아 : SABIC사와 보안통신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04. 4)
- ▶ 러시아 : NTC사와 무선망 설계를 공급 계약 체결 (2003. 10)
- ▶ 베트남 : 최초로 북부 강자강구 3개 지역에 ADSL 3,100회선 개통 (2003. 9)
- ▶ 말레이시아 : TMA에 네트워크 컨설팅 완료 (2003. 9)
- ▶ 일본 : NCCA(NTT자회사)에 인터넷 자가전단 SAW 수출 (2003. 3)
- ▶ 중국 : 상해 전신그룹에 초고속 인터넷 컨설팅 완료 (2003. 1)



각질제거를 도와주는 도브의 새로운 클렌징 바 - 도브 엑스폴리에이팅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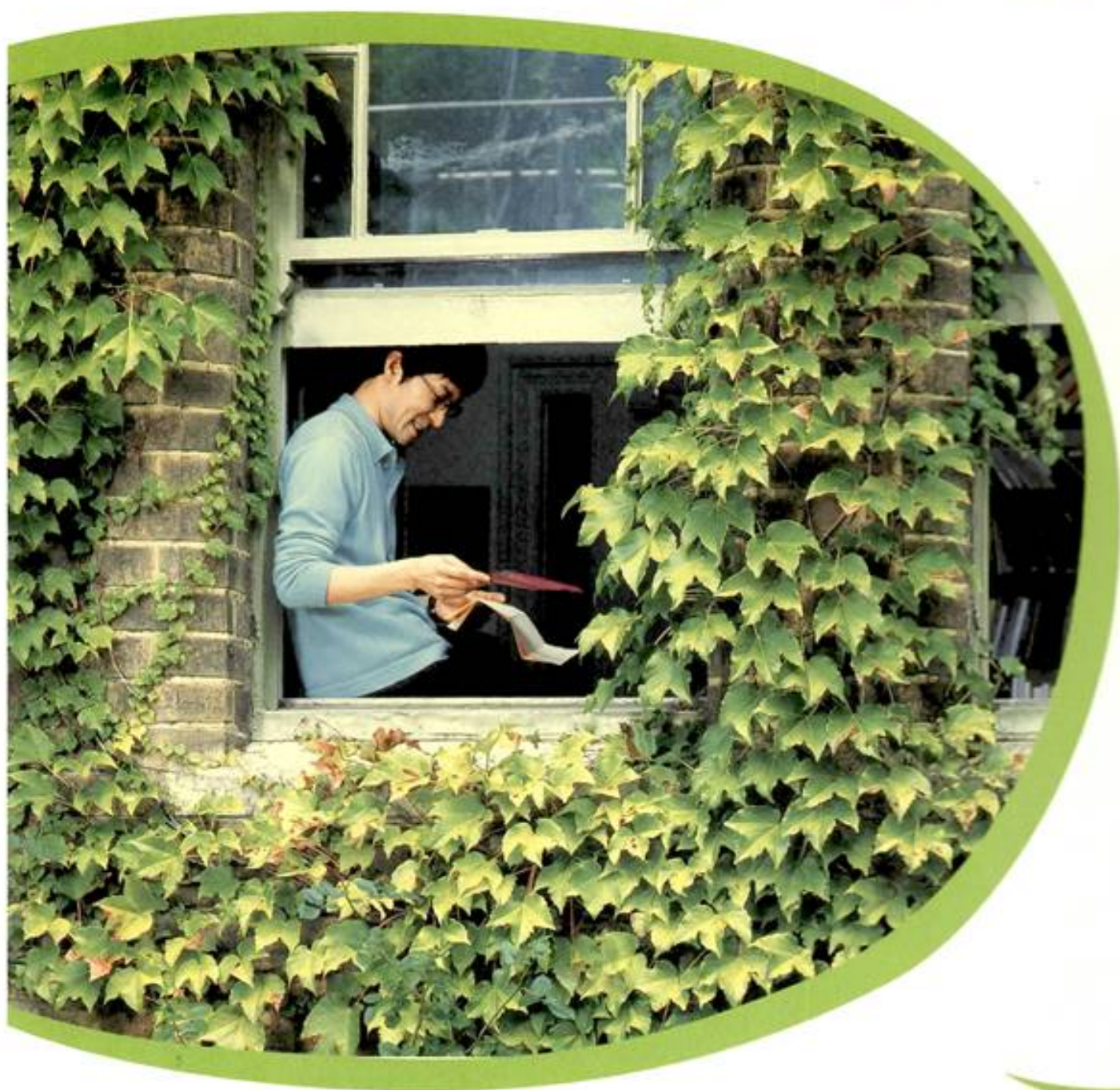
미세한 스크럽 입자가 피부위에 작용하여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1/4 모이스처라이징 크림과 비타민 E 아세이트와 해바라기오일이 피부가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www.dove.co.kr



유니레버코리아(주)

가난과 질병은 이럴 때가 집까지
손대물은 더그장을 줄. 아니냐.

당신은 이미 풀무원입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쁨과 감동의 현장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경륜, 경정, 스포츠복권등 기금조성사업의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의 재원으로 환원 함으로써 전문 체육인의 경기력을 향상 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 “청정경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등 스포츠에 관한 한 공익사업에 적극 지원, 스포츠의 보는 즐거움과 참여하는 즐거움을 제공 함으로써 “정신건강과 청서함양”에 그 일익을 다하여 “풍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 “1등 공기업”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9년 부터 • 국위를 선양하는 전문체육 분야 • 국민생활체육 증진분야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 상위 입상지원 등 총 1조 3,03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들기록하고여성들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서관여기여성이기록하고여
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하
고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
성평등서관여기여성이기
록하고여성이기억하는
바로이곳성평등서관여기
여성이기록하고여성이기억
하는여성들기록하고여성들
기억하는바로이곳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1세기의 주역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운동장 잔디, 우레탄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등을 지속 적으로 펼쳐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대로 운동하며 뛰어 놀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www.sosfo.or.kr

나무는 탄소통조림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내뿜는 커다란 탄소통조림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건강한 숲이 많으면 맑을수록 대기는 맑아지고 지구는 더 살기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숲은 연간 72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커다란 탄소흡수원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흡수원이 되어줄 숲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전 세계적인 노력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지금,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시와 학교에 나무를 심고 숲을 키워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 대기가 살고, 우리의 노력에 지구가 살아납니다.

환경대국 대한민국! 숲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